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2019 북한 신년사 분석 좌담회

2019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일시 : 2019년 1월 3일(목) 10:00-12:3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00-10:05 **환영인사 :**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0:05-12:30 **사회 :**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치·외교 : 문인철 (서울연구원)

경제·사회 : 김일한 (동국대)

대남·통일전략 : 최경희 ((사) 샌드연구소)

토론 : 임강택 (통일연구원)

조동준 (서울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정치·외교 분야

문인철 (서울연구원)

1. 들어가며

- 2019년 북한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어조와 형식에 있어서 좀 더 밝고 세련된 모습을 나타냈음
 - 대내적으로는 확고하며 강한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억제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우선, ‘조선중앙TV’는 자정을 알리는 시계와 한밤의 노동당 본부청사 건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을 시작했음
 - 다음으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했고, 그 뒤로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뒤따랐음
 - 짧은 거리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은 환한 표정을 지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이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나타났음.
 - 그동안 서서 진행하던 모습과 달리 김 위원장은 서재의 소파에 앉아 편안한 모습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음
 - 약 30여 분의 발표 시간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앉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함¹⁾
 - 앉은 자세로 대화하듯이 발표한 것은 친근하고 편안한 상황이며 기존의 경직된 형식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보임
- 서재의 한 쪽 벽을 채우고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역대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자신의 등 뒤에서 부각시킨 것은 선대 지도자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일 수도 있음
 - 2018년 신년사 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배지도 달지 않았었음

1) 2016년 신년사 발표에서 김 위원장이 몸을 흔들며 원고를 읽고 자세가 불안하고 숨이 차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 때문인지 2017년과 2018년 신년사 발표 때 김 위원장의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었음.

-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하든가, 비핵화를 하더라도 사회주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여기서 사회주의 기본 틀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보장과도 관련됨
- 그리고 서재라는 공간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지적이며 노력(공부)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일 수도 있음
 - 그동안 김정일의 모습은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천적인 통치 능력을 부각하는 것이었다면, 2019년은 노력(공부)하는 지도자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전히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간접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음²⁾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편안히 앉은 자세를 연출한 것은 당·정·군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음

○ 2019년 신년사는 경제 발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등으로 구성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내용은 ‘경제’에 방점이 두어져 있음

- 대내적 차원, 남북관계, 대외적 차원 순서로 신년사 구성
 -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 등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문화, 국방, 외교, 남북 및 북미 대미 관계 개선, 비핵화 문제를 다루었음
 - 총 1만 3000자 분량, 대내 정책 약 66%(약 8600자)
 - 경제(38회), 자립경제 7회, 자력갱생 3회, 경제발전 6회 등), 국방(4회), 군사(3회), 평화(25회), 번영(10회), 화해(7회), 남북(17회), 민족(18회), 비핵화(1회), 핵무기(1회) 등

○ 본 발표는 2019년 북한 신년사의 정치와 외교 부문에 대해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를 간단히 전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치 부문

- 신년사는 2018년을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해였다고 평가함
 -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해 북한 대내외적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함

2)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과 4권에는 김일성 주석이 서재에 앉아 집무를 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음.

- 여기서 전략적 결단은 ‘경제-핵 병진 노선’ 종결과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의 전환임

- 2018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북한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간다고 주장

- 사상 단결, 인민 단결, 자립경제, 자위적 국방력 보유 등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함
 - 여전히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에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

- ‘주체형의 새 시대’를 언급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충성을 강조함
 - 북한은 1926년 10월 17일 당시 14세의 김일성이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주체형의 혁명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9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2016년 12월 16일)에서 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기남은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은 주체혁명위업의 장엄한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평가함
 - 이어 그는 “Ⅱ·Ⅲ에서 시작된 주체의 당건설과 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위대한 계승과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19년 신년사는 “우리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다며,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틀어”지고 투쟁할 때 “국력은 배가”되며, “인민들의 꿈과 이상”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지도력 강조와 충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의 토대로서 ‘사상 정신적’ 노력을 주문함
 - 2019년은 2016년에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네 번째 해임
 - 그러한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전 국가적인 동력을 총동원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군수분야 조차도 경제건설과 연계시킴
 -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건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 해”라고 2018년을 평가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 그 때문에 이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자립경제'를 주문함
- 경제발전 집중노선으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통제력 이완을 단속하고자 경제건설에 대한 '사상 정신적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함
 -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을 사상 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 있게 지원”하자고 주문

○ 당, 국가, 인민의 정치사상적 결속을 주문하며, 그 기본은 '인민의 이익'에 있다고 주장함

-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하되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문함
 -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함
- 인민의 이익을 파괴하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 제거 노력을 주문함

○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업 수행의 주체를 인민대중으로 규정함

- 일군 즉 당 및 정부 관료들의 관료주의나 부정부패 행위를 제거하고자 신년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투쟁하라고 주문함
- 이를 위해 당 조직의 역할 제고와 행정경제 일군들의 책임을 한 층 더 부과시킴

○ 정리하면, 정치 분야도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총 동원하자는 주문과 함께 정치사상적 결속을 강조했다음
- 특히, 부정부패 근절과 관료주의 타파를 주문한 것은 경제발전에서 존재하는 방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도 경제와 관련됨
 - 구소련 등 냉전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폐쇄적인 관료체제와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 계획을 잠식시킴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심화시켰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치 부문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3. 외교 부문

○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당의 목표로 밝히고 있음

- 신년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듯이,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임
 - 신년사 서두에서 북한은 병진노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성과로 주장하듯이, 이는 미국의 약속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의 CVID를 원하고 있음
-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년사에는 향후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나타내지 않았음
- 신년사라는 특성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2018년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던 사례를 볼 때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임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만날 의향을 다시 한 번 나타내었고,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다는 것은 추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인민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음

- 북한은 비핵화가 미국이라는 타의에 의한 조치로 비취질 수 있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년사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그동안 북한은 주된 적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핵을 개발하는데 모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 핵을 폐기하는 것을 논의하며, 또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를 취했고, 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의 핵개발 주장과 배치될 수 있음
- 북한은 평화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왔음
- 하지만 정작 신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 상황만 이야기만 존재할 뿐 한반도에서의 ‘미국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음
- 이는 핵 개발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던 북한 정권의 입장과 충돌할 수 있음

○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였음

- 북한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

- 이 빠른 속도로 전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즉, ‘행동 대 행동’의 비핵화 원칙을 주장하였음
 - 이는 현재의 북핵 교착상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반면,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임
 - 아니면, 앞서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일 수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신년사는 정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음
- 신년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하루빨리 청산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여기서 ‘불미스러운 과거사’는 정전체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이어서 신년사는 ‘새로운 관계 수립’ 용의를 나타냄
 - 새로운 관계 수립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이라고 보임
-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음³⁾
- 첫째,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자’는 원칙을 제시함
 - 이는 적대적 차원에서 서로의 진의를 의심하던 관계를 벗어나자는 것으로 이해됨
 - 둘째,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을 제시함
 -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인 하나의 정상국가로서 체제와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셋째,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 원칙을 제시함
 - 이는 주권 국가 간 동등한 협상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이 부분은 신년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나타나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의 맥락이 아닌 동등한 주권 국가 간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북미 관계가 일반적인 정상국가 간 맥락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됨
 - 그동안 북한은 주권 국가의 당위적 권리인 자위적 핵개발을 주장해 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일방적 핵 폐기보다는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해왔음
 - 신년사 말미에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문함
 - 넷째, ‘문제해결의 의지’ 원칙을 제시함
 - 이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미국의 보상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임

3)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음

- 신년사는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협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나타내었음
 - 신년사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예로 들면서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냄
 - 김 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언젠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라고 언급했음
 - 또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임
 -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는 북한의 핵문제로부터 비롯되었음
 - 이를 북한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는 곧 북한의 비핵화를 나타낸 것과 같다고 보임
 - 물론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거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북제재 해제라든가 체제보장과 같은 보상이 수반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라는 북한의 주문에서 나타남

- 신년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 모색의 가능성을 내비쳤음
 - 신년사는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 강요와 제재 및 압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나타냈음
 - 여기서 특기할 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라는 약속 주문에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임
 - CIVD라는 분명한 미국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그 무엇’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 신년사의 주된 대상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보임
 -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 핵개발 논리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임
 - 북한은 핵을 통해 외세의 위협을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가령, 2017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 책동이 극도에 달했지만”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핵무력을 통한 자신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 또한 2018년 신년사에서는 ‘국가핵무력 완성’ 성취로 평화체제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음
 -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음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음
 - 그러면서 북한은 핵이 국가 자주권 확보를 위한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음
 - 그런데 ‘그 무엇’ 즉, 핵 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과 배치될 수 있음

- 아니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차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지점이라고 보임
 -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그 동안의 실질적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렇게 볼 때 ‘새로운 길’은 매우 중의적 표현이라고 보임

-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언급할 때 매우 힘을 주어 말을 했음
- 이는 다시 강경 태도로 선회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핵의 고도화와 경제 건설 등 병진 노선이 재개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미 신년사는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언급했음
- 그렇다면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은 새로운 길이 될 수 없음
- 한편,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협상도 아닐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신년사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음
- 그렇게 본다면 북한 판 ‘전략적 인내’를 모색하거나, 북미 양자 협상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등 다자협상의 새로운 길일 수도 있음
-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을 보았을 때 이정도 수준의 엄포는 지극히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로 판단됨

4. 나오며

○ 2019년 북한은 경제 건설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되 그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가시적 결과가 좀 더 나타나야할 시점임
- 이를 위해 당 및 정부 일군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인민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수 있음
-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와 같이 정치사상적 강조와 통제가 그다지 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는 않음
-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사상이 개발되기보다는 기존의 논리를 좀 더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2019년 북한 신년사는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 조성 노력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2018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여러 해석을 다

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대목임

- 즉, 제재에 의한 것인지, 핵무력 완성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인지가 다시 한 번 대두됨
- 신년사는 제재보다는 핵무력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을 평가하고, 2019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강력, 자력갱생, 강력한 제재, 제재 압박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음
- 김 위원장은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을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딪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임
- 즉, 북한도 비핵화 없이 경제발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임

○ 2019년 북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남북미 간에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합의된 바가 없음
-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음
- 신년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외부(미국)로부터의 ‘전략자산 반입’을 중지를 요구했음
- 바로 이 부분이 비핵화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목이라고 보임
- 여기서 전략자산은 전략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됨
- 그렇게 볼 때 북한은 차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전역이 포함되는 핵능력 제거라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음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적극 전개될 수 있음

- 신년사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주문함
- 특히 그 방식으로 다자협상을 이야기함
-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포함된 4자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남북미 3자 협정이라면 굳이 다자협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음
- 평화체제 전환이 곧 종전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연계되어 논의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음

○ 2019년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것처럼 경제협력에 대해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과거와 같이 다시 군사적 갈등이 발생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가 곧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예로 들어 북미관계 개선을 주문하였음
- 김 위원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 현재 핵개발 중단은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도 얻어 내지 못한 성과임
 - 그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제시할 것이고, 김 위원장이 이를 적당한 선에서 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대북제재 해제보다는 완화 수준이 될 것임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경제·사회 분야

김일한 (동국대학교)

1. 2019년 신년사 특징

○ 자력갱생 강조

- 2019년 신년구호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 가자!》의 ‘자력갱생’은 김정은 시대 신년사에 처음 등장 <표 1> 참조
- ‘자력갱생’의 등장은 2017년 이후 강화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분석 가능
- 제재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주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년사에 ‘제재’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⁴⁾
- 대외적으로는 비핵화협상의 정기화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성격이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론결집과 각 생산 단위별 역량강화의 목적으로 해석 가능

김정은 시대 신년사 “제재”, “봉쇄” 용어 등장

2019년,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2018년,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

2017년,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

○ 군수공업의 민수전용

-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4) 김정은 시대 이전 ‘제재’가 등장한 신년사는 2011년 김정일 시대의 공동사설이었음.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 속에서 진행되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4.20.) 결정인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따라 군수용 생산단위가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임.
- 군수공업의 민수전환은 북한 과학기술분야의 산업분야 협력체계와 더불어 산업발전을 위한 또 다른 협력 network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 재개 강조: 제재해제의 구체적 제시

-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 북한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거론된 것은 최초의 사례임.
- 교착국면의 비핵화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제재해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남북경협’을 대북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하면서 대북제재의 우회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 5.30조치의 지속적인 강조

-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 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⁵⁾들이 기업체⁶⁾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2013년 신년사에 등장한 이후 이른바 ‘5.30조치’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관광분야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2.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신년사 변화: 2012~2019

○ 신년 구호 변화

5) 2010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이후 김정은 시대 처음 언급.

6) 2015년 이후 신년사에서 ‘기업체’라는 용어가 등장함. 기존의 ‘공장, 기업소’라는 용어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표 1> 김정은 시대 신년 구호 변화

	신년구호
2019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2018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2017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15	모두 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20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2013	우주를 정복한 정신과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주요 산업분야의 강조점 변화

- (2019) ① 정책(자립경제, 5.30조치) → ② 과학기술(실용적 기술) → ③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화학-철도) ④ 농업(축산-수산) → ⑤ 경공업 → ⑥ 건설(원산갈마, 삼지연 등) 순
- (2018) ① 선행부문(전력-금속-화학-기계-석탄-철도) → ② 경공업 → ③ 농업(수산, 축산) → ④ 건설(원산갈마, 삼지연 등) → ⑤ 과학기술 → ⑥ 정책 순
- (2017) ① 과학기술 → ② 선행부문(전력-금속, 화학공업-석탄-철도-기계공업) → ③ 경공업 → ④ 농업(수산-축산부문) → ⑤ 건설부문 → ⑥ 정책 순
- (2016) ①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 → ② 농업(축산-수산부문) → ③ 경공업 → ④ 건설부문 → ⑤ 과학기술 → ⑥ 정책 순

<p>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7차 당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 채택. 2016년 5월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5년간(2016~20) 단기 경제발전 전략 -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 에너지문제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정상화, 농업 및 경공업 활성화로 인민생활 향상, - 부문별 과제로는 특히 전력문제 해결이 5개년 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제시 -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진기
--

술을 수용해야하며,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

-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 강화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강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새로운 농업관리체계, 새로운 무역체계, 경제개발구 등 5.30조치의 강조

(2015) ① 과학기술(국방7)과 경제) → ② 농업(농산, 축산, 수산 3대축) → ③ 경공업 → ④ 선행부문(석탄, 화력발전-전력-금속 및 화학-철도) → ⑤ 대외경제(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 ⑥ 건설부문(조선 속도, 발전소,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 → ⑦ 정책 순으로,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데올로기 5대 교양사업을 강조, 위대성 교양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2014) ① 농업 → ② 건설(발전소 등 인프라-살림집-교육시설-평양시건설 등) → ③ 선행부문(금속-화학-전력-석탄 순) → ④ 경공업 → ⑤ 과학기술 → ⑥ 정책 순으로, 전력은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 강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 채택(2013.3.31.)
-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 △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 향상시킬 것 △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 △ 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 발사할 것 △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것 △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 방법을 완성할 것 등을 제시

(2013) ①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 순) → ② 경공업 → ③ 농업 → ④ 과학기

7)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김정은은 4대 전략적 노선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4대 전략적 노선은 ① 정치사상 강군화, ② 도덕 강군화, ③ 전법 강군화, ④ 다병종 강군화를 의미. 이 가운데 정치사상 강군화와 도덕 강군화 노선은 2014년 8월 선군혁명 영도개시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2015년 2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언급했던 표현. 또한 김정은은 2015년 6월 당이 제시한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방법을 부단히 갱신할 것을 주문

술 → ④ 정책 순으로, 특히 2013년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정책적 주문이 최소화된 가장 간소한 신년사였음. 이른바 '5.30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적 과도기 기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2) ① 경공업 → ② 농업 → ③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화학 순) → ④ 과학기술 순

<표 2> 김정은 시대 신년사의 부문별 변화

	agenda, 성과	중공업: 선행부문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 경제정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 총집중노선: 당중앙위 제 7기 제 3 차전원회의 결정 자력갱생, 국가 자강력 사회주의자립경제, 자립적 발전능력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와 과제 	<p>[5개년전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능력 증대, 김철, 황철 금속공장 생산력 증대 화학공업, 기계공업 석탄, 농업, 건설 실적 군수공업의 민수전용 <p>[4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문제, 국가적 투자 집중, 수력, 조수력, 풍력, 원자력 등 석탄, 금속 및 화학, 특히 린비료공장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강화 철도 및 교통운수, 기계 제작공업 강조 <p>(건설부문) 원산갈마해안관 광지구건설, 삼지연군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 타격전방 농업전선 <p>[4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물자 보장 농장원의 의사와 리익 존중 사회주의분배원칙 정확히 구현 축산업발전 4 대고리⁸⁾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 장려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 강조 	<p>[5개년전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공업 대량생산, 질적 수준 및 도약 <p>[4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화, 국산화, 질제고 지방공장 현대화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이며 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 집중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의 협력체계 강화 <p>(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0조치' 경제관리방법개선, 계획화, 가격, 재정 및 금융관리 개선, 경제적공간 활용 기업체 경영활동 지원 체계 정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성과와 과제 3차년도 경제전반 활성화 돌파구 공화국창건 70돌 전략국가 지위 확보 병진노선 강화 	<p>[5개년전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의 무연탄 선철생산 정상화 화학공업 전망 <p>(기계공업) 새형의 뜨락뜨르와 화물자동차생산 목표 점령</p>	<p>[5개년전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기초 마련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 확대 대규모 세포축산기지 1 단계 수행 	<p>[5개년전략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 생산공정 국산화 <p>[3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공업공장 설비, 생산공정의 로력절약형, 전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연구부문, 원료와 자재, 설비 등 국산화를 통한 우리 식 생산공정 확립 자립적경제구조 완비 강조 과학기술보급사업 강화 <p>(경제정책)</p>

		<p>(건설부문) · 려명거리 [3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 전국적 교차 생산조직 구축 · 화력 전력생산 강화 · 지방 수력발전과 전력 자체보장 · 금속공업, 전력 등 원료, 자재보장 · 화학공업, 탄소하나화학 공업창설, 촉매, 린비료 공장건설 · 기계공업, 금성뜨락또르 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 기업을 비롯한 기계 공장들을 현대화 <p>(건설부문) 원산갈마해안관 광지구건설,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살림집건설 등</p>	<p>[3차년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 도입 ·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 강화 · 배무이와 배수리능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절약형으로 개조 · 국산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성과 대책 수립주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성 - 4》 호 · 7차 당대회, 70일, 200 일전투 · 자강력제일주의, 만리마 속도 ·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 영기로 계승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금속, 화학공업 ·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교차생산조직 조성 · 철생산원가 절감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p>(기계공업부문) · 새형의 뜨락또르, 료전기, 농기계의 계열생산공정 완비 주문</p> <p>(건설부문) · 려명거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종자, 두벌농사면적 확대, 농기계도입 · 세포지구 축산기지 정상화 대책 수립 · 현대적 고기배, 동해안지구 종합어구생산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자재 국산화 ·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 생산 정상화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교육의 해 · 과학기술부문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 ·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 강화 <p>(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도, 기업관리 목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소현대화공사, 원산지구건설, 교육문화시설, 살림집 건설 독려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제 7 차대회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인민생활문제 천만가지 국사가운데 제일국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전력, 단천발전소건설 (건설부문) ·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의 대번영기 지속 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생활문제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 농산, 축산, 수산부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대화, 영농공정별보장대책 수립 축산, 수산부문 생산 장성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생활문제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 현대화 실현, 원료, 자재보장대책 수립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과학기술보급실 보급 <p>(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 위한 사업적극 전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국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조선속도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전선 성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10월 8일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공업, 화력발전소 혁신으로 전기문제 전망적 해결 대책 (대외경제)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 등 경제개발구 개발 (건설부문) · 조선속도 창조, 발전소, 공장,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 축산, 수산 3대 축으로 먹는문제, 식생활 수준 향상 물질약형 농법 축산, 양어, 온실, 버섯 생산기지 생산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 질 좋은 소비품,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 생산 (국산화) ·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실현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로 국방 및 경제문제 돌파 <p>(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 확립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 수행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마식령속도, 절약강조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 및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의 쌍기둥 긴장한 전력문제 근본적 해결 전망계획 수력자원 위주의 풍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타격 방향 축산, 온실남새, 버섯배 등 (수산부문) · 국가적 대책,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 창출 바닷가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공업공장의 현대화, CNC화 	<p>(과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지식경제 경제사업의 지도 관리 <p>(경제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건설부문)· 발전소 등 인프라, 살림집, 교육시설, 복지시설, 평양시 건설			
2013	· 《광명성-3》호 2호기 · 새 세기 산업혁명, · 희천발전소, 단천항, 창전거리 완공	· 석탄, 전력, 금속, 철도 운수부문 ·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 혁신 강조	· 경제건설 주공전선 · 축산, 수산, 과수부문 · 세포등판 개간	· 경제건설 주공전선 · 원료, 자재보장 대책	(과학기술) ·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 강조 (경제정책) · '5.30'조치 공식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⁹⁾
2012	·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돌파전, 지식경제 · 함남의 불길 ¹⁰⁾ · 김일성조선 새로운 100년대	· 긴장한 전력문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 희천발전소 · 새탄발 개발 · 주체철생산, 고온공기연소기술 · 주체비료 생산체계, 비날론	· 강성국가건설 주공전선 · 먹는 문제, 식량문제는 초미의 문제 · 농산-축산,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 강성국가건설 주공전선 · 인민의 기호와 인정받는 경공업제품 · 자체원료 지방공업육성	(과학기술) · CNC 공작기계생산,련하의 개척정신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 과학기술인재 대우, 과학연구조건 최상수준 보장 ·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의 밀접한 결합 · 당사업의 화력 집중

<끝>

- 8) 좋은 집집승 종자확보,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 철저한 수의방역대책 등, 박수향,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확고히 틀어지고 축산물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9) 김정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 2014년 5월 30일. 이른바 '5.30'조치의 공식화 조치였음. '5.30조치'의 핵심은 ① 새로운 기업관리체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② 새로운 농업관리체계: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그리고 ③ 새로운 무역체계와 더불어 「경제개발구법」 제정(2013.05.29) 및 특구개발전략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된 것임. '5.30조치'는 “경제문제, 특히 먹는 문제만 풀면 부러울 것이 없음.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관리 개선방안' 마련 지시(2011.12.28.)에 따라 진행됨.
- 10) 정론 《함남의 불길》「로동신문」 2011년 10월 26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원년을 앞두고 함경남도 각급 공장과 기업소에서 하루에 생산계획을 4~5건씩 초과 달성한 내용을 집중보도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대남·통일 분야

최경희 ((사) 샌드연구소)

1. 새로운 이념의 등장과 배경

-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음. 신년사 직후, 조선중앙TV는 새로 나온 가요 ‘우리의 국기’를 방영하여 대내외적으로 김정은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무대를 연출. ‘수령, 당, 대중’을 연상시키는 ‘영도자, 당, 국가’의 이미지 연출에 주력
 -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해나가자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함
 - 2018년 5월에 등장(4월20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승리와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예상됨)하여 내부에서만 논의되던 ‘우리국가제일주의’¹¹⁾ 통치담론이 김정은에 의해 직접 언급된 것은 국가 방향의 정식화를 의미한 것이며 이로부터 이번 신년사의 부분별 내용이 연간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평가됨
-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대외적 함의
 - 1986년 7월, 김정일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 파생된 ‘우리민족제일주의’는 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선택하던 시기에 남북관계의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었다면,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대외적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굳건히 하고 보통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남북한 두 개 국가가 ‘평화체계’를 구축하여 ‘공존’ 도모하기 위한 목적지향형 개념으로 해석됨

11)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인민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강국의 실체를 보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우월하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이 간직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근본 핵이다.”(노동당기관지『근로자』2018년 5월호, 편집국논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국가를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만드는 거창한 국가건설 목표”(『철학·사회정치학연구』2018년 2호(5~8월)).

2. 대외정책과 대미전략

- 대외정책 기초: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1987년 자주, 친선, 평화에서 변경) 유지
 - 중국과 쿠바의 친선관계를 중시, 미국과의 평화적 관계 절박성 표시, 김정은 신년사에서 백악관 트럼프의 집무실과 같은 무대 장치와 행위가 연출된 것이 특이한 점

- 북한이 추구하는 북미협상 단계
 - 북미협상단계에서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수립”(북미 외교관계 수립),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공한 평화체제 구축”(평화 협정 체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순위의 분변의 입장을 주장하여 ‘선 핵폐기, 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냄
 - 핵개발의 동결 재확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나 북미 사이에 외교관계 정상화나 평화협정 체결의 진전 없이는 다음단계인 핵사찰, 핵신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

- 북미대화 국면을 지속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강력한 희망 표현
 - 미국의 협상 자세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미국이) 현 대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여 최대한 현 협상 국면을 깨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함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용어사용과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도움 없이도 능히 발전할 수 있다’거나 미국이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경우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어 협상에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특히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국제사회가 환경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ICBM 포기 의지를 밝힘

-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 회피-협상에서 양보 가능성 내비침
 - 한미군사훈련 중지, 외세와의(과거: 미국) 전략자산과 전쟁장비(과거: 미국의 핵장비) 반입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입장’보다 약화된 표현
 -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연계와 다가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구축. 남한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못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고 역설
 - 이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남한의 협조 하에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3. 대남정책과 통일전략

○ 지난해 남북관계 평가

- 3차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천명
‘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은 동족상잔을 종식할 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
- 이는 북미 협상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교류·대화 분위기로 유지하면서 정세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미 수교를 위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음
- 대남구호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통일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선포한 것 역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남한을 북미협상의 잠재적 아군, 경우에 따른 적군과 완충지대로 보고 있음을 보여줌

○ 남북한 ‘불가침 선언’의 연장선에서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의 전환을 요구

- 북미관계에서 ‘평화체제’구축을 필요로 했고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를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
- 국내부분에서 인민군대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장에서 신화들을 창조”하고 군부 공업부분에서는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재래식병력의 감축을 예고하기도 함

○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한에 던진 공경제제를 풀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

-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개재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 삼지연군 문화도시의 표준, 월산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완공
- 다양한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며 진행한 철도, 도로, 산림, 보건, 환경 분야의 남북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

4. 평가와 전망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구호 제시

- 당면하게 평화는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간에 평화협정을 의미하며, 번영은 경제협력과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며, 통일은 그 다음단계에 위치함으로써 멀어진 통일전략은 오히려 현상유지 전략으로 변종

○ 북미 간에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은 통상병력의 근대화 과제를 해결해야

됨. 하지만 재래식 병력의 근대화에 착수해도 어느 정도까지 의 군사비를 증대할 것인지는 불분명함

- 물론 북한은 생물, 화학병기와 단거리탄도미사일(스커트)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남한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능력을 확보하고 이에 만족할 가능성도 있음

- 북미간의 '핵'군축에 병행하여 남북한 '재래식병력' 군축 일방적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인민군 중에 '건설부대'를 제대시키고 경제건설에 전환함으로써 수십만 규모의 병력 감축이 가능함

[MEMO]